

3주차

# 태평양전쟁과 총동원체제 하의 여성들 (1930-40년대)

김 지 민

## 학습목차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01. 일본 군국주의의 움직임: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 일본의 근대화 과정
- 군국주의적 움직임 -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
- 대동아공영권

### 02. 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병참기지’ 조선
- 내선일체
- 민족말살정책

### 03. 독립운동과 여성

- ‘신여성’의 세 갈래의 길
- 근우회
-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 04. 제국의 여성 이미지

- 제국이 만든 이미지
- 총후부인
- 신사임당의 회귀

### 05. 전쟁에 동원된 여성들

- 국내 인력동원
- 국외동원 - 여자근로정신대
- 대륙신부

# 5차시

# 전쟁에 동원된 여성들

## 학습목차

### 학습목표

- 전시총동원기 여성들이 동원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전쟁 중 여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국내 인력동원
- 국외동원 - 여자근로정신대
- 대륙신부

# 국내 인력동원

# 이번 차시에는...

---

- 전쟁 중 여성들의 생활
- 남성 중심적인 전쟁 연구의 관점 변화
- 일제 말기 전시체제에서 여성이 동원된 방식

# 전시 인력동원

- 처음에는 모집의 형태로 일본 광산, 토목공사에 집단적으로 동원
- 국가총동원법 시행(1938.5)으로 조선의 전시 노동정책 본격화:
  - “전시, 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전시 인력동원

- 국민징용령 공포(1939):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
- 학도지원병제도 실시(1943): 전문학교와 대학생 4,500명을 지원형식으로 모집
- 징병제 실시(1944): 청년 약 20만명 강제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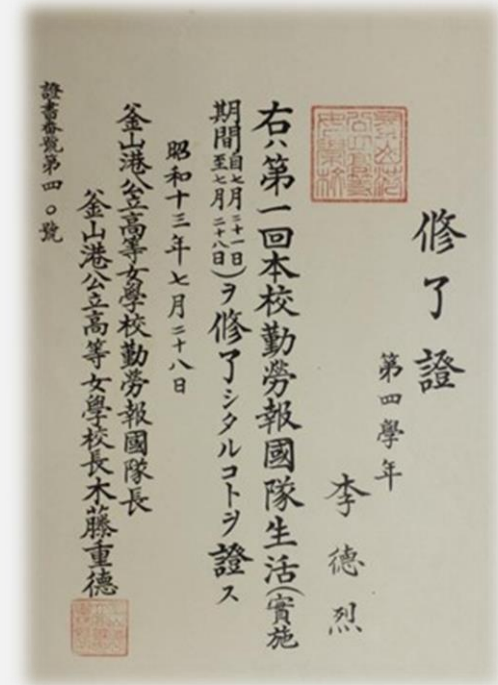


조선인의 징용에 대한 문답식 해설서  
《조선징용문답》(매일신보사, 1944.2) 표지



# 여성 동원의 시작

-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
- 근로보국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성 동원이 본격화
- 근로보국대: 학생, 여성, 농촌 노동력이 동원



1938년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 학생이 받은 근로보국대 수료증

# 근로보국대

- 전 조선의 행정구역, 단체, 학교를 단위로 조직
- 20~40세 남녀를 대상으로
- 관공서 직원을 중심으로 시작
  - 각 지역 부녀자 단체 조직으로 확대
- 여성들의 동원: 옥외노동, 폐품수집, 위문대 만들기 등
- 여학생과 농촌 여성의 동원



근로보국대

# 근로보국대

-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시행(1941)
- 14~25세 미혼여성의 전면적 동원
- 그 외의 여성도 명목상 지원자 중심으로 동원
- 각 지역 근로보국대 설치:

약 50명 단위로 구성, 1년에 30일 이내 동원



1938년 마산여고 근로보국대의 모습

# 여성 근로동원의 강화

---

- 1943년 1월 20일 일본 내각회의, ‘생산력증강긴급대책요강’ 결정
- 만 14세 이상 미혼자, 신규학교 졸업자, 불요불급 학교 재적자 등을 노동에 동원
- 사실상 모든 조선 여성이 동원 대상

# 국외동원 - 여자근로정신대

# 조선인의 인구이동

---

- 해외 조선인 대다수가 만주 거주
  - 1940년대에는 전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 급증

# 조선인의 인구가동

---

-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급증
- 전시총동원기 7백만명 이상이 국내외로 동원
- 그중 1백만명 이상이 국외 동원

# 여자근로정신대

---

- ‘위안부’와는 다른 조직
- 일제에 의한 여성 동원이라는 공통점 (‘처녀공출’)
- 일부 정신대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거나 성노예 피해를 당함
- **정신대는 군수공장 등에 동원된 여성들을 가리킴**



# 여자근로정신대

- 처음에는 일본에서, 나중에는  
조선에서 동원. 총 약 20만명
- 1944년 3~4월에 조선총독부가  
평양여자근로정신대 조직
- 여러 지역에서 정신대를 조직하여  
일본의 군수공장에 동원



1944년 6월경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오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소녀들

# 정신대의 동원 방식

---

- 관청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 지원, 학교나 단체 통한 선전 등
- 모집 여성들은 학교에서 황민화 교육과 일본어를 배운 어린 여학생들
- 취업과 교육 기회를 빙자한 취업 사기, 유인, 강제, 협박 등

# 정신대의 동원 방식

---

- 일본에서의 생활과 공장의 모습 등을 담은 영화 상영
- 일제의 동화정책 아래 성장한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정신대 모집의 강제성

- 자발성, 자주성에 기초한 조직이라는  
표면적인 선전
- 그러나 여기에서 이탈하면 비국민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협박성 경고
- 강제와 세뇌



1944년 6월 여자정신대의 모습

# ‘처녀공출’

---

- 정신대와 ‘위안부’를 통틀어 부르던 말
- 공출: 전쟁기 농민이 할당받은 양의 농산물을 관청에 팔아야 하는 제도
- 처녀공출: 각 지역에 모집 여성을 할당해서 강제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말

# 정신대 - 일본과 조선의 차이

- 일본에서는 주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형식
- 조선에서는 공권력이 깊이 개입해서 알선하는  
방식에 따라 강제적 성격이 더해짐

# 왜 조선의 여성들은 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나?

- 조선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여성에 대한 제도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 이를 배경으로 정신대 여성 모집에 공권력이 개입하게 됨
- 정신대는 조선 여성들이 민족, 성, 계급적 차별을 받았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 정신대의 현실

- 일본 도야마현 후지코시 공장:  
1945. 5월 당시 1,089명의 정신대원 존재 확인
-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종전 무렵 272명의 대원
- 열악한 기숙사와 노동 환경
- 고된 노동으로 빈번한 부상이나 사망 발생



진해 해군항공 조병창에서 일하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들



# 종전 후 귀향한 후에도

---

-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고 편견어린 시선으로 또다시 피해
- 가부장적 편견과 차별로 이중적 피해
- 일부는 성노예 피해

# 그 외 조선 여성들의 동원 피해

---

- 일본군에 속한 군속, 종군간호부, 광산 노동자로 동원
- 전장에 동원된 남성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여성의 동원
- 전쟁물자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
- 여성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폭력적인 노동

# 대륙신부

# 조선인의 만주 이주정책

---

- 1930년대부터 일제의 확장에 동원
- 만주 이주민 청년들의 결혼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들을 동원
- ‘대륙신부’

# 조선인의 만주 이주정책

---

- 조선총독부는 초기에는 방임적 태도
- 1930년대 만주의 군사적, 산업적 가치 상승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적극 지원
- ‘조선인은 이주한 곳에서 잘 적응하며 버텨낸다’

# 조선인의 만주 이주정책

---

- 1930년대 후반에 본격화
- 만주이주 조선인은 일본인에 준하여 ‘개척민’으로 취급
- 가정적 근로주의를 기초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

# ‘처녀이민’ 정책

---

- 1938년부터 만주이주 청년들의 결혼난 타개를 위해 관청이 주선
- 경상북도, 대구부,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직접 추진

# 대륙신부 정책

- 일본인 대륙신부 정책이 모델
- 일본인 대륙신부:
  - 개척민 정착 돕고 일본민족 순혈을 확보하고 의식주 확보 등을 목표
  - 개척농민의 조경자, 위안자, 보육자로서 여성의 역할 기대
- 총후부인 담론과 상통



‘대륙신부’ 선전물



# 조선인 대륙신부 정책

---

- 1942년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
- 조선이주협회가 신부 모집, 만주 내 청년 중 구혼자 조사
- 조선인 청년의용대와 조선인 여성의 결혼알선 추진

# 대륙신부

---

- 만주의 숙소에서 적응훈련, 사실상 노동에 동원
- 일본인 대륙신부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과 달리  
조선인에게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대처

# 마무리

---

-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 및 강제된 여성들의 노동과 이주
-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식민지와 전쟁 상황에서 여성들이 겪은 상황

[출처01] 부평역사박물관

<https://www.kogi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recommendIdx=6206&division=img>

[출처02]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부산근대역사관 소장 (소장품번호: 기증 1042)

[출처03]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부평역사박물관 (소장품번호: 부평역사 1858)

[출처04] 경상남도교육청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1&dataSid=979918](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1&dataSid=979918)

[출처05] 해외문화홍보원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2063&page=9&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searchText=&RN=90>

[출처06] Wikimedia Commons; 毎日新聞社 「一億人の昭和史 銃後の戦史」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men\\_volunteer\\_corps2.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men_volunteer_corps2.JPG)

[출처07] Wikimedia Commons; 『戦ふ朝鮮：写真報道』 朝日新聞社, 1945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7%AC%EC%9E%90%EA%B7%BC%EB%A1%9C%EC%A0%95%EC%8B%A0%EB%8C%80#/media/%ED%8C%8C%EC%9D%BC:Korean\\_Women's\\_Volunteer\\_Corps\\_working\\_at\\_the\\_Chinkai\\_51st\\_Naval\\_Air\\_Arsenal.jpg](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7%AC%EC%9E%90%EA%B7%BC%EB%A1%9C%EC%A0%95%EC%8B%A0%EB%8C%80#/media/%ED%8C%8C%EC%9D%BC:Korean_Women's_Volunteer_Corps_working_at_the_Chinkai_51st_Naval_Air_Arsenal.jpg)

**[출처08] Wikimedia Commons**

[https://ja.wikipedia.org/wiki/%E5%A4%A7%E9%99%B8%E3%81%AE%E8%8A%B1%E5%AB%81#/media/%E3%83%95%E3%82%A1%E3%82%A4%E3%83%AB:Poster\\_to\\_recruit\\_immigrant\\_to\\_Manchukuo.png](https://ja.wikipedia.org/wiki/%E5%A4%A7%E9%99%B8%E3%81%AE%E8%8A%B1%E5%AB%81#/media/%E3%83%95%E3%82%A1%E3%82%A4%E3%83%AB:Poster_to_recruit_immigrant_to_Manchukuo.png)

**[출처09]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apanese\\_settlers\\_in\\_Manchuria\(8\).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apanese_settlers_in_Manchuria(8).JPG)

강윤정,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018.

강정숙, “여성사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젠더리뷰》 52, 2019.

강혜경, “전시총동원체제기 여성의 강제동원과 사실 규명의 과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al Technology* 7(1), 2021.

고희탁, “근현대일본에서의 서구문명 수용의 이중주와 그 유산,” 《아세아연구》 59(1), 2016.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의 식민 정책과 민족의 수난,” 우리역사넷.

권명아, “총후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상허학보》 12, 2004.

김미정,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에 대한 노동력 동원 양상: 1937~1945년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2(3), 2019.

김수진,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0, 2008.

김정인, “3.1운동과 그 이후, 여성의 현실 참여,” 《인문과학연구》 28, 20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2016.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5).

박정애, “조선인의 만주 이주 정책과 ‘대륙신부,’” 《여성과 역사》 33, 2020.

박정애, “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연구: 정신대의 역사적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2), 2020.

신영숙, 여자정신대, 우리역사넷.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6.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 2, 2002.

임인숙, “일제 시기 근로정신대 여성들의 정신대 경험 해석과 의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3.

정재정 편, 《동아시아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011).

정현백 외,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무늬, 2016).

## REFERENCE

- ❖ 조유경, “신문매체로 유포된 1940년대 경성 여성의 이미지,” 《미술사논단》 43, 2016.
- ❖ 홍양희,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사학연구》 122, 2016.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